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제6회 토론회

##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일 시 : (제6회) 2011년 9월 8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 관 : 국어학회, 조선일보

주 최 : 국립국어원

## 제6회 토론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 회	손범규(SBS 아나운서)
15:05~15:25 '20	'영어 강의' 주장 발표	황중배(건국대 영어교육과 교수)
15:25~15:45 '20	'영어 강의 반대' 주장 발표	이병민(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15:45~15:55 '10	'영어 강의'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임동훈(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5:55~16:00 '5	답 변	
16:00~16:10 '10	'영어 강의 반대' 주장에 대한 지정토론	서의수(포항공대 기술혁신경영대학원 교수, 포항공대 이중 언어 영어 공용화 캠퍼스 프로그램 책임자)
16:10~16:15 '5	답 변	
16:15~16:45 '30	패널 자유 토론	
16:45~17:05 '20	객석 질의응답	
17:05~17:10 '5	폐 회	

##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전체 주제 (시간과 장소는 동일)

- 제1회(6/23) '후진타오'인가 '호금도'인가(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 제2회(7/7)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 제3회(7/21)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 제4회(8/11)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 제5회(8/25)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 제6회(9/8)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 사회자

손범규 아나운서  
SBS 아나운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국어학박사

### ■ 발표자

황중배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Oregon에서 응용언어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영어교육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6년부터 호서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에서 약 5년간 재직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국내 최초의 TESOL 프로그램 및 TESOL 대학원을 개설하여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다.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영어교육학회 총무이사 및 교과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교육청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공동 집필한 저서로는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좌우파 사건”(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 “어린이 영어교육” 등이 있으며, 공동 번역서로는 “영어 교수 학습의 원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pre-university English-educational background of college freshmen in a foreign language program: A tale of diverse private education and English proficiency

The validity of translation tasks as an EFL reading comprehension assessment method in Korean high school classroom.

대학에서학문영역별영어학위논문작성과정경향.

영어공교육 개혁의 전망과 가능성

유럽대학에서 학술 언어로서 영어의 역할과 위상

대학생들의 구어 영어 노출 경험: 노출 시간과 유형을 중심으로

캐나다 퀘벡의 프랑스어 몰입교육 탄생의 사회, 역사적 배경

리터러시(literacy) 개념의 변화와 미국의 리터러시(literacy) 교육.

우리나라 및 비영어권 대학 영어관련학과 학부 교과과정 비교 연구.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등이 있으며, 주로 제2언어습득, 외국어로서 영어교육 및 언어교육 정책, 영어 습득의 노출과 시간, 조기영어교육, 제2언어로서 영어의 문식력 습득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 ■ 토론자

#### 임동훈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84/3-1988/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9/3-1991/2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졸업  
1991/3-1996/6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졸업

1993/7-2002/2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2002/3-2008/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2008/3-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최근 주요 연구 실적>

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007, 韓國語 助詞 ‘만’과 ‘도’의 意味論, 『朝鮮學報』 205.  
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2005, ‘이다’ 구문의 제시문적 성격, 『국어학』 45.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 서의수

포항공대 기술혁신경영대학원 교수, 포항공대 이중 언어 영어 공용화 캠퍼스 프로그램 책임자

1971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4년 미국으로 유학 갈 때까지 지도 교수(조순 전 총리) 밑에서 경제학 연구를 수행했다. 미국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SUNY-Stony Brook), 재무 경영학 석사(MBA, U of Florida), 재무 경제학 박사(U of West Virginia)를 취득했다. POSTECH에 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경제 분석 및 재무 관리 분야에서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체에 종사하였고, 여러 대학에서 겸직교수로 강의하였다. 산업체에 직접 응용이 가능한 많은 논문과 자료를 발표하였고 그러한 발표는 미국정부의 전력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되었다. 미국에서 35년간의 산업계, 학계에서 활약 후, 2010년부터 POSTECH 기술혁신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POSTECH 이중 언어 영어 공용화 캠퍼스(Bilingual Campus)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 중이다. POSTECH에서 2010년 불학기부터 경제학 및 재무 관련 수업을 영어로 가르쳐 왔다.

## 목 차

- 일 정
  
-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발표 1: 황 중 배\_건국대 영어교육과 교수 ..... 1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
  
- 발표 2: 이 병 민\_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 11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
  
- 지정토론 1: 임 동 훈\_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 25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한 토론문
  
- 지정토론 2: 서 의 수\_포항공대 기술혁신경영대학원 교수 ..... 29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 부 록 1: 대학 영어 강의 관련 참고 자료 ..... 35
  
-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 8월 26일자 기사(제5회 토론회 기사) ..... 65
  - 9월 6일자 기사(여섯 번째 주제 토론 기사) ..... 66

발 표 1

#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

황 종 배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 발표 1 |

##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

황 중 배  
(건국대 영어교육과 교수)

## 1. 서 론

대학에서의 영어 전용 강의에 대한 최근의 지대한 관심과 폭발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위주의 무분별한 영어 강의 확대에 대한 비판이나 영어로 전공과목을 강의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제시되었으나(김도식, 2006; 권오량, 2008) 그것들은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논의가 아닌 주관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전지현, 2002; 정영숙, 2007; 강소연, 박혜선, 2004; 박혜숙, 2006; 유경애, 정현숙, 2009; 오희정, 이희원, 2010)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생들의 강의 평가나 영어 전용 강의에 대한 인식 혹은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 위주로 이루어졌을 뿐, 전공과목을 100퍼센트 영어로 강의했을 때 학생들의 전공 지식 습득이 한국어로 강의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전공과목에 대한 영어 강의가 학생들의 전공 지식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연구를 통하여 그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또한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가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영어로 강의했을 때와 한국어로 강의했을 때 학습자들이 느끼는 강의 만족도와 흥미도를 비교함으로써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탐구하도록 하겠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 시내 K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전공수업 중의 하나인 ‘응용영어학입문(Introduction to Applied English Linguistics)’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목은 두 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한 강좌는 영어로, 다른 한 강좌는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두 강좌 모두 한 사람의 교수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졌고, 수업을 진행한 교수는 10년이 넘게 영어학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평소에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은 물론 전공과목을 영어로 진행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영어영문학과와 전공 혹은 다(부)전공 학생들로 영어 강의와 한국어 강의에서 각각 30명씩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가하게 되었다. 과목을 재수강한 학생과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를 선택한 집단과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좌를 선택한 집단 사이의 영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어휘(8문항)와 문법(5문항), 독해(17문항)로 이루어진 총 30문항의 영어 시험을 학기 초에 실시하였다. 영어 시험 결과 영어 강의 집단의 평균 점수는 30점 만점에 22.50(표준편차는 2.80), 한국어 강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1.84(표준편차는 3.66)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통계 결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1, 48) = .526, p > .05$ ). 영어 강의 집단과 한국어강의 집단 사이의 영어 시험 점수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자신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 한국어 강의 혹은 영어 강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년 분포와 미국 연수 및 체류 경험과 체류 기간을 조사하여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한 전공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 2.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 학기에 걸쳐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강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모두 동일한 영어 원서 교재를 사용하였다. 교재는 Introduction to Linguistics(7th edition)로서 두 강좌는 모두 이 교재 일부분(6개 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는 두 반 모두 동일하게 하였다. 수업방식은 파워포인트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강의 자료는 모두 영어로만 작성하였다. 과제로는 교

제의 연습문제 중 일부를 선택하여 부여하였고(선택 문항은 두 반 모두 같았음) 과제에 한하여 영어반은 영어로 발표를, 한국어반은 한국어로 발표를 시키기도 하였다.

두 강좌는 모두 동일한 시기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강좌의 시험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True/False를 묻는 진위형 문제 25개, 빈칸 채우기 10개, 단답형 10개, 서술형 5개로 총 50문항을 출제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도를 조사, 비교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분석하였다. 강의평가는 학교의 포털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강의평가 항목 총 25개 중,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3개,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묻는 문항은 2개였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본 강좌에 만족한다', '본 강좌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강좌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의 세 가지 항목이고, 흥미도와 관련한 평가 항목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였다', '나는 학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은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단계로 이루어져 그 중의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었다.

###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대학교의 학기에 맞추어 총 16주 동안 진행되었다. 영어 강의 집단과 한국어강의 집단 모두 첫 주의 첫 강의에서 영어 시험을 치렀으며, 8주차에는 중간고사, 마지막 16주차에 기말고사를 치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90분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문제지는 두 집단 모두 영어로 출제되었으며 문제 제시에 사용된 지시문은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쉬운 표현들로 이루어져 이해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각 문항의 영어도 이미 수업 시간에 사용된 교재에서 추출된 것들이라 두 집단 사이에 문항의 이해도에 따른 점수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가지, 영어 강의 집단과 한국어강의 집단은 답안작성 시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 이유는 영어구사능력의 수준차이로 인하여 주관식 답안 작성에 있어서 성취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어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답안의 채점은 작성된 영어 답안의 문법이나 철자의 오류 등을 무시하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술형 문제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맞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후 14-15주차에는 두 집단 학생들 대부분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였는데 강의평가의 항목 중 두 집단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를 비교, 조사하

기 위하여 이 두 항목에 해당하는 설문 결과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학교 포털사이트에서 무기명으로 시행되었다.

## 3. 연구 결과

### 3.1 영어 전용 강의와 전공지식 습득

표 1. 집단 간 시험점수 비교

집단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영어 강의	중간고사		72.07	14.75
	기말고사	30	64.60	18.28
	총점		136.67	29.97
한국어강의	중간고사		67.13	15.96
	기말고사	30	62.27	21.81
	총점		129.40	35.75

그림 1. 시험별 집단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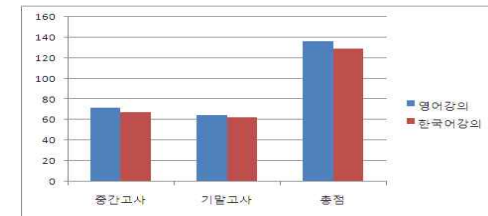


표 2. 일원분산분석 통계 결과

		SS	자유도	MS	F값	유의도
중간고사	집단간	365.07	1	365.07	1.546	.219
	집단내	13695.33	58	236.13		
	합계	14060.40	59			
기말고사	집단간	81.67	1	81.67	.202	.655
	집단내	23479.07	58	404.81		
	합계	23560.73	59			
총합	집단간	792.07	1	792.07	.728	.397
	집단내	63105.87	58	1088.03		
	합계	63897.93	59			

## 3.2 영어 전용 강의와 영어능력

표 3. 집단별 영어능력에 따른 전공지식의 습득 비교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영어 강의	영어상위	17	142.07	29.95
	영어하위	13	118.31	37.59
한국어강의	영어상위	14	144.00	24.20
	영어하위	16	127.08	34.83

표 4. 이원분산분석 통계 결과

	SS	자유도	MS	F값	유의도
수정모형	7116.64a	3	2372.22	2.340	.083
절편	1047373.51	1	1047373.51	1032.96	.000
집단	423.99	1	423.99	.418	.520
영어능력	6137.11	1	6137.11	6.05	.017
집단 * 영어능력	173.28	1	173.28	.17	.681
오차	56781.29	56	1013.95		
합계	1125770.00	60			
수정합계	63897.93	59			

a. R Squared = .111 (Adjusted R Squared = .064)

## 3.3 영어 전용 강의와 강의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

표 5. 강의 만족도와 흥미도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

	항목	집단	평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만족도	전반적으로 본 강좌에 만족한다	영어	4.00	33	40	20	7	0
		한국어	3.60	26	31	21	19	2
	본 강좌를 통해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영어	3.93	37	33	17	13	0
		한국어	3.60	31	29	17	17	7
흥미도	이 강좌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영어	3.90	33	40	13	10	3
		한국어	3.48	21	36	19	17	7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였다	영어	3.80	30	40	7	7	7
		한국어	3.57	29	26	26	12	7
	나는 학업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영어	4.00	43	23	23	10	0
	한국어	3.86	36	21	36	7	0	

## 4. 논의 및 결론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업할 때와 한국어로 수업할 때 학습자들의 전공지식 습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두 시험을 합친 총점에 있어서 영어 강의 집단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영어 전용 강의와 한국어강의의 차이가 전공지식의 습득에는 아무런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 학생들의 내용 지식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영어 강의를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자의 영어구사 능력 미흡으로 인해 모국어로 수업할 때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영어 전용 강의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 전공지식의 습득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교수자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0년이 넘게 전공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영어로 하는 의사소통은 물론 전공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어로 진행된 전공수업이 한국어강의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영어 강의 집단과 한국어강의 집단의 영어능력을 비교했을 때 영어로 진행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보다 영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인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보다 학생들의 전공지식 습득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도 이전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어 전용 강의와 한국어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흥미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비록 통계적인 검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진행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국어로 진행된 강의를 들은 학생들보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와 흥미도 모두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영어 전용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면으로 들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불편함과 그에 따른 학습흥미와 강의만족도의 저하라고 할 때,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매우 의외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 전용 강의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어로 이루어지는 강의에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 갖는 만족도와 흥미도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많은 대학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어 전용 강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소연·박혜선. 2004. 공학분야의 영어 강의(EMI)에 대한 기초연구. 《공학교육연구》 7, 87-96.
- 권오량. 2008. 교수 용어를 영어로 하는 강의. 《공학교육》 16, 87-96.
- 김도식. 2006.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를 과연 바람직한가? 《철학과 현실》 33, 73-79.
- 박혜숙. 2006. 공과대학에서의 전공 영어 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33, 86-119.
- 오희정·이희원. 2010. 효과적인 영어 강의의 특성과 지원 방안 탐색. *Modern English Education* 11.
- 유경애·정현숙. 2009. 영어 전용 강의(EMI)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 연구. 《영어학연구》 28, 67-89.
- 전지현. 2002. 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 233-251.
- 정영숙. 2007. 교육대학교 영어 전용 수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영어교과교육》 6, 83-109.

발 표 2

##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

이 병 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발표 2】

#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

이 병 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 1. 글을 시작하며

대학 영어 강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최근 KAIST 대학생들의 자살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아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 정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나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많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강의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2. 대학 영어 강의 소사(小史)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는 영어 강의는 약 10여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영어공용화, 영어교육, 영어몰입교육 논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그것을 뒷받침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화두는 많은 대학에서 영어 강의 개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영어 강의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하여 포항공대와 카이스트가 주도하였으며 언론기관에서 추진하는 대학평가나 대학의 경쟁력 및 국제화 지수에서 영어 강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되면서 거의 모든 대학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대학들은 영어공용화를 도입하고 영어공용화 캠퍼스를 선포하기도 했다.

각 대학들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영어 강의가 갖는 허울 좋은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대학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영어 강의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서 왜 영어 강의를 도입해야 하는지, 누

가 영어 강의를 할 것인지 (내국인 교수 vs. 외국인 교수), 대학생이지만 어떤 대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들을 것인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나 논의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된 측면이 적지 않다.

지금 이루어지는 영어 강의를 보면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애초 막연하게 의도했던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모습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 3. 대학의 영어 강의,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

그런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 강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1. 교수들, 영어 강의 준비되어 있나?

대학 영어 강의를 진행할 정도의 교수는 있는가? 즉, 만약 영어 강의를 의무화한다면 누가 이 강의를 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각 대학에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가 얼마든지 있고, 영어 강의를 의무화했을 때 실제 영어 강의를 하는 교수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어떤 면에서 보면—일부 대학의 자료이기는 하지만—서울대학교의 경우 약 80% 이상의 교수들이 미국이나 영어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조건만 본다면 영어 강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영어 강의를 하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영어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연구소 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영어 강의를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거나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그것도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강의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능력이며 쉽게 발달하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7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고 영어교육을 전공하면서 영어를 잘 해보려고 무진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해왔다. 실질적으로 영어 강의를 한 학기를 계산하면 10학기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영어 강의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반드시 영어 능력 때문에 영어 강의를 꺼리는 것만은 아니다. 우

리나라 학생들을 앞에 놓고 우리말을 모국어로 하는 교수가 영어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운 광경일 수밖에 없다.

전공에 따라서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간단한 공식이나 개념 설명으로 가능한 전공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고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문화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다. 다시 말해 전공 분야들 중에서 어느 정도 어떤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지 정도에 차이가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주로 전공하는 분야가 MSIS 또는 회계학 분야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마케팅이나 다른 분야는 전공자 적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영어라는 언어가 개입되어 있다. 기술이나 숫자와 같은 것들은 언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한 언어들이 대부분 언어의 경계를 벗어나서 영어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라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

설명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제 막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담당 교수는 전공 분야의 전문용어를 영어를 사용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 분야의 개념이나 내용을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개념의 설명은 가급적 쉬운 용어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일상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야 할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수는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 사용했던 책이나 실험실에서 접했던 영어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이런 정도의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Butterfly Effect'나 "Broken Windows" 또는 "Game Theory"와 같은 개념을 영어로 소개할 수는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담당 교수는 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개념을 쉬운 영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을 섞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소위 파워포인트로 강의 요점을 제작하고 일방적으로 'next' 'next'하면서 파워포인트에 기술된 영어를 읽고 그것이 끝나면 "Next"하는 식으로 하는 강의하면 그것을 우리는 영어 강의라고 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교수의 강의를 듣는 배경에는 책이나 동료 친구들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된다면 차라리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강의를 원격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등록금도 반값이 아니 1/3로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핵심은 담당 교수가 얼마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로 풍부하게 자신이 모국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책에서 혼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들러 온 것이다. 대학의 강의는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한 작업이다.

정리하면, 미국이나 영어권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수준의 만족한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는 우리 대학에 많지 않다. 또한 전공별로 강의에 필요한 영어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수학이나 일부 전공 분야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강의는 반드시 한국어 강의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 3.2. 모든 전공 분야에서 영어 강의를 해야 하나?

모든 전공 분야에서 영어를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해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전반적인 국민들의 영어 수준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각 국가별 토벌 성적이 정확한 국가별 영어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비롯한 다른 통계 결과를 보면 이들 국가의 영어 능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들 국가의 대학에서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 영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관련학과에서 대부분 영어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를 포함해서 경영학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 영어 강의를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에 외국인 교수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다.

독일 대학의 경우 자연과학 분야에서 영어로 논문을 쓰거나 영어 강의를 일부 도입되고 있다. 이 경우 영어 강의는 독일 학생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미국이나 영국 대학에 대부분의 유학생을 빼앗기고 있는 독일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어 강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1997/98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는데 소위 "international programs"라고 불린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과학, 기술,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런 영어 강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대학은 독일의 경우 전체 대학 약 1/3 정도로 2000년에 약 42개 대학 정도였다.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는 영어에 매우 능숙한 독일 교수나 외국에서 초빙된 외국인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다(Ammon, 2001).

물론 독일이라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이런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하다.

Evaluation of these programs will have to deal with the possibilities of insufficient English-language skills of the German professors, of difficulties of Anglo-Saxon professors in adjusting to students for whom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of the availability of

adequate teaching materials, or the question of whether high-quality foreign students are at all attracted who might want to acquire native English alongside knowledge in the subject. (Ammon, 2001: 358)

즉, 영어 강의를 담당하는 독일 교수의 영어 능력 미흡,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 교수와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부족, 적절한 교수 자료의 부족,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이 과연 독일 대학이 영어 강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질문은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 영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뛰어난 영어 능력을 가진 교수는 몇 명이나 되며, 그런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개설했을 때 과연 그 유학생 자원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며, 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우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 3.3. 누가 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누가 영어를 배워야 하고 누가 영어 강의를 들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영어 강의는 아마도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 대학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보면 국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런데 모든 전공에 걸쳐서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해야 한다. 대학의 영어 관련 교수들도 영어를 잘 해야 한다. 외교부 관리나 기업에서 해외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임직원들도 영어를 잘 해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은 무엇을 해야 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까? 그러면 이런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조사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2000년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지 5년이 지난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영어가 어느 정도나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인지 등위를 매겨보도록 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영어는 전체 대학교육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능력 16가지 능력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1997년 졸업자들은 영어 독해 능력 11위, 영어 회화 능력 14위, 영어 글쓰기 능력 15위로 평가했다. 2002년도 졸업자들은 영어 독해 능력 12위, 영어 회화 능력 15위, 영어 글쓰기 능력 16위로 평가했다. 즉, 학부교육과정에서 영어 능력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다른 능력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평가다(김계현 외 3인, 2003).

한편,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영어로 발표된 학위논문과 우리말로 작성된 논문을 비교해보면 흥미롭다(전종민과 이병민, 2007).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교과와 물리학 전공을 보면 1998년-2008년 동안 발표된 학위논문의 100%가 영어로 작성되었다. 영어 논문의 비율을 보면, 자연과학 분야가 가장 높아서 전공 분야에 따라서 70-100%를 차지한다. 그러나 공학계열이나 약학, 의학 분야로 가면 이 비율은 조금씩 떨어져서 60% 정도를 상회한다.

문과계열의 경우 영어논문의 비율은 훨씬 떨어진다. 문과계열 전공 중에서 영어 학위 논문 비율이 높은 학문분야는 영어 관련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영학 분야에서 제출된 논문들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는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대학원생들에게 학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언어인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과계열에서는 경영학이나 영어 관련 학과를 제외하면 아직은 학문언어로서 영어의 역할이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경향이 북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구 900만의 스웨덴, 500만의 노르웨이, 450만의 핀란드를 보면, 영어로 논문을 쓰는 비중은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학문분야별로 편차는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연과학 분야에 한정해서 영어 논문의 비중이 높아지며, 영어로 학문의 장에서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Ammon, 2001; Truchot, 2001).

그러나 자연과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영어의 역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인구 규모가 적고 국민들의 영어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인 스웨덴에서 영어 강의는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영어는 마치 또 다른 모국어처럼 사용되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거의 없는 경우가 스웨덴이지만(Oakes, 2001), 대학에서 영어 강의는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학부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강의하는 경우는 전공 분야별로 차이가 많다. 가령 교육학의 경우 영어 전공 강의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과학이나 공학 분야로 가면 약 50% 정도가 된다. 인문학은 약 25%, 사회과학은 약 20% 정도다(Gunnarsson, 2001).

문제는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모국어 환경, 영어 능력, 국가의 규모, 역사적 배경과 경험, 언어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식이나 정체성 등이 비슷한가 하는 의문이다.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우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3.4. 대학생들, 영어 강의 들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학생들은 영어 강의를 들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반적으로 학부과정에 입학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일부 특별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영어 강의를 듣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과학고에 재직하고 있는 영어교사에 의하면, 과학고 졸업생들이 다수 입학하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 강의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교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과학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증언한다.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학고 입학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때 중점을 두는 분야는 단연 수학이며, 기타 과학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된다. 영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 순위에서 빠져있다. 이런 상태로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유로 영어는 등한시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수학과 과학 분야에만 집중한다. 과학고에서 중학교 영어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과학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과학고에서 받는 영어교육도 핵심 교과목이 아니며, 대부분 수학과 과학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다.

대개 이들은 과학고에서 2년 과정을 마치면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 대학의 이공계에 진학하거나 일부는 3학년 때 일반 대학에 진학한다. 이들이 청소년기에 영어교육을 받은 과정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대학에 입학하기 까지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그들이 받은 영어교육도 전형적인 학교 영어교육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영어교육 이외의 시간에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영어로 전공이나 교양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은 어떤 형편일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을 보면, 각 교육기관들이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별로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각 기관들이 입시나 취직 등을 빌미로 요구하는 영어 수준은 매우 높다. 실질적으로 초중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이 700-800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에도 많은 수의 학생들은 소위 독해나 문법 문제 또는 교과서의 본문을 외우는 데 집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어 내신 성적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영어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학교 영어교육은 내신 성적이라는 굴레 때문에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고 그런 문항들이 전혀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학교 영어시험이 그렇고, 학교 영어시험이나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쏟아 붓는 학습시간도 실질적인 영어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받은 영어회화 교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평균 300시간을 넘지 않았다(이병민, 2008). 이런 현실에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실질

적으로 대학은 영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물론 대학생들의 영어 수준에서 편차는 매우 심하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의 양극화도 대학생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Lee, 2010). 소위 혜택을 받은 소수(즉,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조기유학 경험이 있거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양한 영어사교육을 받거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들의 영어 능력은 영어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토플시험을 치르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 편안하게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데 약 대개 2-3년이 소요되었다. 대부분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지고 강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도 쉬워진다고 한다. 누구는 '미국에서 3년 사나 7년 사나 영어 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도 한다. 3년이 지나 일상생활에서 영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영어를 배울 동기를 느끼지 못하며,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별로 영어가 나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어느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수준(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에 도달하는 데 2-3년을 계산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한 영어 수준에 도달하는 데 약 7년 정도를 잡는다(이병민, 2003). 영어 습득에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노출의 양과 시간을 계산해보면 학교 영어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들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영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적어도 1-2년을 소비한다면, 결국 전체 4년 동안의 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1-2년은 상당부분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양 교육 및 전공 분야의 지식을 희생하고 영어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3.5. 영어 강의, 학부생이 대상인가?

대학 신입생부터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거나 학부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미국 유학 경험을 보면, 적어도 2년은 일부 내용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책에 의존해서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2년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기 학부 2년 과정을 희생해도 괜찮은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유럽의 대학들의 경우 영어 강의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부생도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대학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같이 영어가 일상화된 국가의 대학들이며,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3.6. 영어 강의,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우리 대학의 영어 강의는 누구를 위한 영어 강의인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어 강의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과연 어느 언어권 학생들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영어권 학생들이나 유럽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주로 중국이나 연변의 중국동포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의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이런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선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영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을 국제화시키고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는 명분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영어가 세계어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어가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주요하게 다루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말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보다 영어로 강의를 개설하면 외국 학생들에게 별도로 우리말을 배워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영어 강의의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유학을 온 외국 학생들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생일 것이며 그들이 국내 대학에 유학함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나 우리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 재학생 수를 채우기 위한 외국 유학생이 준비하며, 학점만 따고 학교에는 나타나지 않는 유학생 등 외국 유학생들의 실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불어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영어 강의를 따라갈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영어 강의에 매력을 느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올 것인지도 의문이다.

### 3.7. 영어 강의, 대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영어 강의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한두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영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일본 최초의 국제대학이며 일본어와 영어로 강의하는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과반수가 외국계 학생이며 영어 강의 비율도 50% 이상을 상회한다. 일본어를 비롯해서 영어 및 다른 외국어가 대학에서 사용되는 분위기에서도 일본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이나 수준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능력은 그렇게 쉽게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이병민, 2003).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도 상당수의 교수들은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문과계열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나 공학 분야 전공 교수들의 영어 능력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분야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실시하는 조건은 미국이나 영어권에 비해서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했을 때,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연구 결과가 없어서 무엇이라 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영어 능력이 영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영어 능력 향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영어 능력은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따라서 영어 강의를 어느 정도나 학생들의 전공 능력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영어 강의와 한국어 강의 사이에 학습 결과의 차이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 4. 글을 나서며

영어교육학자들은 대부분 학문적으로 영어교수법이나 영어습득을 둘러싼 문제에 집중한다. 즉,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원어민처럼 영어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조금이라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연구한다. 이런 기능주의적인 시각은 때로 매우 왜곡된 영어 가치에 경도된다. 즉, 쉽게 가능한 목표도 아니면서 무조건 영어를 잘 할 수 있고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기능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영어몰입교육 주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인들이나 기업이나 사회의 리더들도 영어라는 언어를 기능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영어를 해야 먹고살 수 있고, 영어를 잘 해야 국제경쟁력이 생기고, 영어를 이용 하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느 나라의 국민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한국인들의 영어 능력이 높지 않은 것을 두고 소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시장 효율적인 접근을 한다.

이런 영어에 대한 기능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시각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기능주의 시각이 대학 사회에서 영어 강이나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졸업자격 기준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어는 상품이 아니며, 영어는 언어다. 언어는 인간에게 물과 공기과 같은 존재다.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위적으로 조정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능숙해지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동기과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것이 모국어이고 외국어이다.

영어와 우리말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두 언어가 지금처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힘들어 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하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다른 하나는 그 다른 하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 영어를 매우 뛰어나게 잘 하고 싶으면, 우리말을 어느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영어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말로 학문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영어로 지식을 확산시키고 싶다면, 우리말로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쓰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말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구조를 영어로 대체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길을 택했으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는 모두 인구가 천만이 되지 않는 소국들이다.

현재 우리 대학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영어 강의의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 지금 우리 세대는 100년 전의 문헌을 잘 읽지 못한다.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거의 문헌을 현재의 우리말로 번역해주지 않으면 과거의 지적 유산이나 기록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확대된다면 과연 100년이나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영어로 기록된 현재의 우리 기록들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적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세대를 넘어 지식의 단절은 영어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손실이다.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고 영어 강의를 필수로 확대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영어 강의를 누가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이며,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어느 대학이 할 것이며, 왜 할 것이며, 그랬을 때 우리말과 영어와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 보지 않으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강의는 일회성 이벤트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약화시키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계현, 백순근, 홍송이, 이강주. (2003, 3).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학력 의견조사 보고서: 졸업후 5년차(1997년 졸업자, 2002년 졸업자와 비교 포함)*.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이병민. (2005). 유럽대학에서 학술 언어로서 영어의 역할과 위상. *외국어교육연구*, 8, 15-40.
- 이병민. (2008). 대학생들의 구어 영어 노출 경험: 노출 시간과 유형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6(4), 349-370.
- 전종민, 이병민. (2007). 대학에서 학문영역별 영어 학위논문 작성과 경향. *Foreign Language Education(외국어교육)*, 14(3), 207-229.
- Ammon, Ulrich. (2001). English as a future language of teaching at German universities? A question of difficult consequences, posed by the decline of German as a language of science. In Ulrich Ammon(ed)'s *The domain of English as a language of science: Effects on other languages and language communities* (pp. 343-361). New York: Mouton de Gruyter.
- Gunnarson, Britt-Louise. (2001). Swedish, English, French or German—the language situation at Swedish universities. In Ulrich Ammon(ed)'s *The domain of English as a language of science: Effects on other languages and language communities* (pp. 287-316).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ee, Byungmin. (2010). The pre-university English-educational background of college freshmen in a foreign language program: A tale of diverse private education and English proficiency.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1), 69-82.
- Oakes, Leigh. (2001).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Comparing France and Sweden (Impact: Studies in Language and Socie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Truchot, Claude. (2001). The languages of science in France: Public debate and language policies. In Ulrich Ammon(ed)'s *The domain of English as a language of science: Effects on other languages and language communities* (pp. 319-328). New York: Mouton de Gruyter.



지정토론 1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한  
토론문

임 동 훈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황종배 교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

#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한 토론문

임 동 훈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 1. <황종배, '대학 영어 전용 강의의 효과'>에 대하여

- 1) 수강생: 영문학 전공생 → 대학 영어 강의의 대표성 문제
- 2) 강의 방식: 한국어 강의, 영어 강의 모두 ① 영어 원서 교재 사용, ② 영어로 된 강의 자료 제공, ③ 파워포인트 위주 강의, ④ 영어로 된 시험 문제 출제 → 한국어 강의의 대표성 문제
- 3) 결론: 영어 전용 강의와 한국어 강의의 차이가 전공 지식의 습득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음 → 신뢰도의 문제
  - <참고 1> 흥미도: '나는 학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영 4.00:한3.86),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흥미롭게 진행하였다'(영3.80:한3.57) →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교수의 수업 동기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
  - <참고 2> 학생들이 영어 강의를 오히려 이해가 잘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왜곡된 '눈높이 교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송승철).

## 2. 영어 강의 의무화의 문제점

- 1) 학문 주체성의 문제: 영어 강의 의무화는 '영어로 학문을 하라'는 뜻. 모국어로 학문을 하지 못하면 학문 수준이 일정한 한계에 머물게 됨(고차원적 사유 행위의 제약). → 창의적 학문을 하지 못하고 학문 수입국으로 전락.
  - <참고 1>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대학 랭킹에는 영미권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대학이 모국어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대학.

<참고 2> 일본은 서구의 학술 성과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모국어로 권위 있는 전문 서적을 축적함. 모국어의 토양 위에서 학문의 저변을 넓히고 토양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현재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참고 3> 영국의 과학 기술은 라틴어나 불어로 꽃피지 않았다(이광근)

- 2) 교육의 질 하락: 모국어는 언어 사용자들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

<참고>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대 글로벌 MBA' 강의의 강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경영학과 송재용 교수는 '한국인 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할 경우,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한국어 강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나, 영어나를 두고 늘 갈등한다'라고 고백함.

- 3) 초중등 교육의 파행: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의무화하면 초중등 교육에 파행을 초래함. 청소년의 지적 사고력을 키워 주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하기보다 영어 교육(사교육 포함)에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투자하게 됨. 그러나 영어는 도구일 뿐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음.
- 4) 국어 구사 능력의 약화: 영어 강의 의무화는 학습자의 사고방식 및 문화에도 영향을 끼침. 대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거나 자기 의견을 말이나 글로 풍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음.
- 5) 정체성의 변화: 은연중 미국식 문화에 대한 추종을 초래함으로써 우리말과 우리 삶의 방식을 알보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참고> simple하다, happy하다, needs, shortest way, drastic한 변화

- 6) 학문 다양성의 소멸: 미국 의존성과 편향성의 강화. 심지어 제2외국어 전공자도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게 됨. 또 영어 강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학문 수준이 뛰어난 사람은 대학 교수로 임용되지 못함.

## 3. 결론

- 1) 대학 영어 강의는 필요한 전공에서 수업 여건의 준비 상태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 현재와 같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추진은 폭력적
- 2) 대학이 지향하는 바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 달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면 우선적으로 '강의의 내용을 국제적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 그러기 위해선 창의력 있고 모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 양성이 중요. 강의 수준은 떨어지면서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는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킴.

지정토론 2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서 의 수

포항공과대학교 기술혁신경영대학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이중 언어 영어 공용화 캠퍼스 프로그램 책임자

■ 이병민 교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 ■

##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 반대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서 의 수

(포항공대 기술혁신경영대학원 교수)

영어 강의 반대자인 이병민 교수는 성공적인 영어 강의를 위한 중요 사항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 강의 지지자들은 그의 논문 Sections II 와 III.1에 기재된 질문 사항 및 논의 사항을 신중히 받아들여, 적절한 영어 강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능숙한 영어실력

이병민 교수의 요점은 “교수들은 효과적인 영어 강의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학생들은 영어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영어 강의는 효과가 없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지난달, POSTECH은 한국인 학생 및 교수들,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 학생 focus 그룹, 졸업생 focus 그룹 등 6개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주요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능숙한 영어 실력은 성공적인 영어 강의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2) 학생 및 교수의 영어 실력과 영어 강의에 대한 개인 성향 및 효과성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영어 실력이 능숙한 학생이 영어가 능숙한 교수의 수업을 들을 때,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황종배 교수의 실험결과와 일맥상통한다. POSTECH 설문조사에서도, 똑같은 수업이 한국어 및 영어로 제공 될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그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교수의 영어 강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focus그룹의 경우 70%에 달했으나 일반 학부생들의 선택은 50%에 그쳤다.

설문에 응한 모든 그룹들은 영어를 통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선 학생 및 교수들의 영어 실력이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POSTECH 외국인 학생 및 교수들은 글로벌 캠퍼스의 효과적인 영어 강의를 위해 특히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0년 동안 대학 입시만을 위한 영어 교육을 받은 대학 신입생들이 영어를 통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국에서 박사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수들은

영어로 가르친 경험이 태무 혹은 전무하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 학생 및 교수들이 영어를 통한 학습 및 가르침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병민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병민 교수가 논문 Section III.1에서 지적한 것처럼, 교수들은 특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어를 통한 학습의 목적 및 필요성

영어 강의의 목적은 학계 및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 언어, 즉 영어로 각각의 직업 및 전문 분야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POSTECH 졸업생 focus그룹의 72%는 영어 강의를 크게 지지하는데 이 중 반수는 모든 과목을 영어 강의로, 나머지 반수는 전공과목을 영어 강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한다. 이는 이병민 교수의 논문 Section III.2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대학은 학생 및 교수들의 영어 강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졸업생들은 효율적인 영어 강의의 주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졸업생 그룹의 63%는 성공적인 영어 강의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동기, 그리고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37%는 교수의 영어 실력과 동기, 그리고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총수출입액은 국가 총생산액에 달하며, 한국 회사들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전문지식 활용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외국어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 정기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들은 이병민 교수의 논문 Section III.3에 기술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어 실력을 성취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POSTECH 입학식에 초청연사로 나선 한 70대 교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신의 화려한 성공 이력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 후회를 토로했다. 영어는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국제 언어임을 강조하면서, 신입생들에게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능숙한 영어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 대기업 간부는 POSTECH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회사 제품의 80%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판매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글로벌 사업가 (global entrepreneur) 에게 있어 필요 요건이 무엇이나고 질문하였고, 이에 한 학생이 “영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글로벌 사업가는 세계의 문화, 고객 그리고 그들의 심리까지 파악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각 직업별로 능숙한 영어 실력에 대한 요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영어 강의는 그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POSTECH의 설문 조사 대상, 특히 졸업생 그룹은 성공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선 능숙한 영어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병민 교수의 논문 Section III.3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직업영어의 필요를 아주 낮게 보는 결과와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한국은 매년 수십만 명의 대학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를 의무화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전문 분야별로 능숙한 영어 실력에 대한 요구가 실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중 어떤 학생들은 영어로 공부해야 하며, 또한 어떤 학교들은 영어로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영어 강의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병민 교수의 주장과 같이 (section III.1) 교수의 뛰어난 영어 구사력이 특히 요구된다.

## 영어 강의와 한국인 의식

영어 강의의 논쟁에 있어 찬성측과 반대측은 반쯤 찬 물잔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반대 측은 반박에 없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를 버리려 한다. 찬성 측은 반박에 없으니 더 채워야겠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 안 좋은 것을 버리려다 좋은 부분까지 잃게 되는 격이다. 이는 사실상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에 들어간 막대한 시간과 연간 수십 조에 달하는 투자금을 그대로 쏟아 버리는 셈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 인제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일단 부족해지면 이를 보충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후자의 경우 물컵을 채우기 위한 도전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양의 노력 및 돈이 소요된다.

영어 강의는 학생 및 교수에게 큰 부담감을 준다고 영어 강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영어에도 “No pain, no gain”이라는 표현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시간과 돈을 들여 힘들게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젊은 시절의 짧고 굵은 고생은 후에 큰 소득으로 돌아온다. 이는 또한 초·중·고 시절 놓쳤던 효과적인 영어 교육 기회를 만회하고, 글로벌 리더 및 국가 경쟁력을 위한 능력을 갖추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영어 강의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 문화, 심지어는 한국어까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민 교수도 논문 Section III.6에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다. 본 저자의 대학 시절 은사는 미국 명문대학에서 학부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10년의 미국 생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경제학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경제 기획원 장관 및 부총리로 재직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의 한국인 정체성, 한국 문화, 한국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의 경우는 예외였던 말인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공부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외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고 공부했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정체성, 문화 혹은 한국어 실력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해 단지 영어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한국어 실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일인가?

이학 및 공학 분야의 수업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아, 한국인의 정체성 혹은 문화와는 밀접한 연관이 없다. 인문사회과학의 많은 기본원리들도 인류공통적인 것들이다. 글로벌 리더는 국내의 리더들과의 의사소통 시 혹은 업무 현장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전문용어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국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의 역군들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나아가 한국인의 정체성 및 문화를 강화하고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유창한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일부 반대자들은 학술적 공부와 영어 공부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학 관련 교과서 및 논문을 번역할 때, 영어를 잘하는 의학 전문가와 영어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비전공자 중 누가 더 잘 번역할까? 바로 영어를 잘하는 의학 전문가이다. 한국에 사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같은 방식으로 배울 때, 전문 분야에서 영어소통을 배양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각 전문 분야에서 언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충분히 육성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거주하고 공부한 사람들에게 그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영어권 환경에서 수년간 공부한 것으로 충분하지를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일부 교수들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공부하고,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있으나, 영어 강의를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일이다.

수요는 많으나, 국내 공급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해외에서 공부해 왔다. 외국에서의 교육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어느 누구도 외국에서의 학습 혹은 국내에서 영어로 학습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 및 문화의 부족함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의 영어 강의는 경제발전 초창기에 한국이 장려했던 경제적 수입 대체와 유사한 학문적 수입 대체를 촉진한다. 한국의 수입대체 정책은 경제적 발전 및 경쟁력을 촉진시켰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전문가들을 “수입”해 왔다. 이제, 국제 언어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를 우리 손으로 육성할 시기이다. 학문적 수입 대체 정책은 한국의 학문 경쟁력 및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작업은 경제적 수입 대체제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국제 언어에 능숙한 각 분야별 리더를 세계로 배출하는 한국이 되기 위해선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교들이 선두주자가 되어, 능력 및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강의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한다고 주장하는 대학들은 구호를 넘어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물론 각 학교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인 영어 강의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부 록 1

대학 영어 강의 관련 참고 자료

■부록 1■

## 대학 영어 강의 관련 참고 자료

- 대학 영어 강의 확대 관련 기사(kinds.or.kr,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검색)
  - 전공과목 영어로 강의/고대 과마다 2~3개씩  
[동아일보]|1990-11-07|14면 |사회 |뉴스 |479자  
고려대는 전공과목 영어강의, 대규모 어학관신설, 교수연구연제도입, 국제화강좌 개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학교육 국제화방안」을 확정, 오는 91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 큰 인기  
[세계일보]|1992-04-06|13면 |1211자  
◎고대 시행 1년만에 8개 단과 16개 과목으로 늘어  
고려대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해온 정규과목의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시행 1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일반학과 영어강의제/이화여대,2학기 도입  
[한국일보]|1994-07-30|31면 |사회 |뉴스 |301자  
이화여대는 29일 오는 2학기부터 일반학과 과목에 「영어강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어강의제」는 강의내용과 수업의 진행에 주로 사용하는 제1언어를 영어로 하는 것으로 영어와 무관한 일반학과 과목의 영어강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의 등 전과정 영어로 진행/연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국민일보]|1996-11-20|25면 |사회 |뉴스 |188자  
연세대는 98년부터 특수대학원인 국제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바꿔 강의,시험,논문 심사 등 전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박사과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강의 모두 영어로 진행  
[국민일보]|1999-01-14|13면 |01판 |사회 |뉴스 |371자  
서울대는 빠르면 오는 1학기부터 이공계 대학원의 모든 학과 강의를 영어로 진행키로 하고 모든 대학원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 [정보통신] 정보통신대학원 강의 20% 영어로  
[서울경제]| 1999-02-21|00면 |492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원장 양승택)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새학기부터 전 과목의 20%를 영어로 강의하기로 해 화제다.
- 아주대 경영학부 영어로 전공 강의  
[중앙일보]| 1999년11월10일|20면  
아주대 경영학부가 내년 신입생부터 시작해 2003학년도에는 전체 1~4년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기로 결정, 관심을 끌고 있다.
- 아주대, 유학생에 영어·생물학 영어로 강의  
[한국일보]| 2000-03-24| 25면 |10판 |생활·여성 |기획,연재 |1198자  
경영학부와 공과대, 사회대 등에서 전공과목 상당부분을 이미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 경영학부의 경우 특히 이번 신입생부터는 모든 전공강의를 영어로만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4학년이 되는 2003년에는 전과목을 영어로 듣고 묻고 답하게 된다.
- “영어로 강의 못하면 교수로 채용 안한다”  
[헤럴드경제]| 2000-04-21|01면 |418자  
서울대가 올해 신규 교수를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영어 강의능력을 중요 한 자격 기준 의 하나로 삼는다.
- 부산대 65개 과목 영어로 강의  
[매일경제]| 2000-12-18|06면 |1070자  
= 내년 1학기 부터...수강생에 인센티브 제공 = <부산=김성진> 부산대학교가 전국 대 학 가운데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대규모의 정규강좌를 영어로 강의한다.
- 포항工大 모든 대학원 2003년까지 영어 강의  
[중앙일보]| 2001-07-23|31면
- 서울대 “영어강의 20개 개설” /외국인 교환학생 수용위해  
[한겨레]| 2003-08-21|18면 |01판 |사회 |397자  
서울대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서울대는 20일 “외국인 교 환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내년 2학기부터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을 중심으로 영어 강의를 20여개 정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내 첫 쏘과목 영어로 강의 대학 개설/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 2006학년도부터  
[세계일보]| 2004-11-16| 24면 |45판 |오피니언·인물 |421자

- 국내 최초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단과대학이 개설된다. 연세대학교는 2006학년도부터 국내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 을 1 대 1 정도로 하는 언더우드 국제학부(UIC)를 개설한다고
- [경남] “English Only” ...경상대, 영어전용 강의동 개관  
[동아일보]| 2005-09-26|14면 |40판 |729자  
강의는 물론 음료를 주문하거나 학용품을 살 때도 영어만 써야 하는 영어전용 강의동 이 경남 진주의 한 국립대학에 생겼다.
- “영어 못하면 강의 못들어요” .. 교양과목도 영어수업 증가  
[한국경제]| 2006-02-06|1469자  
대학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부 수업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다. 강의 5개 중 1개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일부나마 ‘영어 공용화’가 실현된 대학 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 KAIST “Only English” ...대학원 2010년부터 100% 영어강의  
[세계일보]| 2006-04-19|92면 |50판 |698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10년부터 대학원생 수업을 100% 영어로만 강의하게 된다.
- 고려대 문과대교수회 결의“전공 영어강의 거부”  
[서울신문]| 2006-05-05|07면 |20판 |사회 |뉴스 |1050자  
고려대 문과대학 교수들이 전공과목의 일부를 영어로 강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학교측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 전공과목을 졸업 때까지 일정 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된 상
- 서울대 공대 ‘영어 수업’ 논란... 내년부터 외국인 학생 포함된 모든 강의  
[국민일보]| 2006-10-23|09면 |05판 |사회 |뉴스 |1142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김도연)은 내년 1학기부터 외국인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듣는 모든 공대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대 공대, 영어강의 이어 전용 영어캠프  
[세계일보]| 2006-11-15|09면 |05판 |사회 |뉴스 |576자  
서울대 공대가 영어 강의를 도입한 데 이어 전용 영어캠프를 개설하는 등 국제화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대 공대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전용 영어캠프를 서울대 단과대 가운데 처음 개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대 법대도 영어강의 두과목 들어야 졸업 가능, 2학기부터 도입  
[경향신문]| 2007-03-15|09면 |45판 |사회 |뉴스 |740자



서울대 법대는 전국 법과대학 중 최초로 영어로 법학 강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 교수들, 영어 못하는 죄로... 영어강의 늘며 임용·승진·연봉 격차 확 벌어져  
[한국경제]| 2007-07-19| 1145자  
고려대에서 석·박사를 마친 김모씨(경제학·35)는 올해 교수 공개 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2003년 9월부터 고려대가 내건 '신규 임용 교수는 100% 영어 강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 계명대, 영어로만 강의 '글로벌 MBA과정' 개설  
[매일신문]| 2007-08-29| 0자
- 서울대 국사학과, 올 대학원 수업서 첫 영어강의  
[한국일보]| 2008-02-23| 06면 | 42판 | 사회 | 뉴스 | 644자  
각 대학의 영어강의 확산 추세 속에서도 '영어강의 제로(0)'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서울대 국사학과가 올해 1학기부터 대학원 수업에 처음으로 영어강의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 한의학 “세계로 가자” ... 전공 영어 강의  
[중앙일보] 2008년 12월 01일 [11면]
- 울산과기대 모든 수업 영어로 강의  
[한국경제]| 2009-01-14| 612자  
[한경닷컴]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올해 첫 신입생부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울산과기대는 이를 위해 융합학문 교육, IT교육 강화, 100% 영어 강의,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12년까지 전과목 영어강의”  
[문화일보]| 2010-02-11| 08면 | 03판 | 952자  
포스텍(포항공대)이 오는 3월 신학기부터 강의와 연구, 교수회의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공용 캠퍼스(Bilingual Campus)' 계획을 전격 시행한다.
- [대구·경북] “우리는 국제학부 강의실로 유학간다” 영남대 새 학기 국제학부 신설... 100% 영어강의  
[조선일보] 2010.02.26 대구 A28 면  
영남대가 100%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국제학부'를 신설한다.

- 강릉원주대, 영어강의 아웃소싱...주 5시간 '원어면 수업'  
[한국경제]| 2010-04-02| 1238자  
강릉원주대는 지방 국립대 중 처음으로 영어 몰입교육 도입을 선언했다. 대학이 사교육업체에 영어 강의를 위탁(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 카이스트 교수 영어강의 '반기'  
[세계일보]| 2011-04-11| 10면 | 06판 | 사회 | 뉴스 | 697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측의 '징벌적 수업료'와 100% 영어강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 교수가 앞으로 우리말로 강의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 KAIST 학사운영 개선... "영어강의 전공과목만"  
[한국경제]| 2011-04-12| 823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 논점에 대한 기존 견해들

- 김명환(2007)
  - 영어 강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그동안 대학이 학생의 영어능력을 제대로 향상시키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더 따지고 들면 한국 대학이 지식은 내부로부터 생산하지 못하고 영미권에서 들어온 지식의 전파와 소비에 머물게 됨으로써 연구와 교육 모두를 표류하게 할 염려가 높다. 가령 신입 교수에게 영어 강의를 의무 조항으로 넣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에 깔린 사고방식은 위험천만하다. 이는 사실상 우리말을 포기하고 영어로 학문을 하라는 지극히 비지성적인 방침이다. 영어영문학과나 영미권 관련 강좌는 별도로 논해야겠지만, 대학에서 영어 강의의 도입은 단순히 사용언어의 선택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현실에 뿌리 내린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학문, 수준 높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문제와 연관된 일로서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인 것이다.(246~247)
- 황중배(2007)
  - 외국어 교육이 모국어 습득이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국어의 학습이 모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그다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의 발음이나 문법, 학습자의 인지능력, 그리고 모국어 읽기나 쓰기 능력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인 한국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백퍼센트 제공해주지는 못한다.(103)

- 영어 교육이 모국어인 한국어의 습득이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영어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여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많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영어 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어떤 부정적 혹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오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103)
- 김도식(2008)
  - 물론 대학도 세계화의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영어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영어와는 거리가 먼 나라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목적도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영어 강의를 우리나라 전 대학으로 확산된다면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가도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외국인들에게 돌까봐 겁이 날 정도이다.(78)
  - 영어에 능통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손해 보면서까지 영어 강의를 강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영어 학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다보면 세계화를 위해서 대학의 영어강의 뿐 아니라 아예 우리의 공식 언어에 영어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올 법하다.** 세종대왕이 곡을 할 노릇이다.(78~79)
- 김달효(2010)
  - 대학 영어강의 강화에 대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능동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유능한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고, 수동적으로는 언론사의 대학평가 시 글로벌지수의 측정 항목에 영어강의 비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서 높은 순위에 포함되려는 전략 및 주요 대학들이 영어강의 비율 증가를 명문대학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들 수 있다. 언론사의 평가 준거 및 방법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단 대학들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민감하게 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39)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의 전공수업의 영어강의에 대한 효과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학영어강의에 대한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극소수로 나타나지만 연구방법에 있어 결정적인 결함을 지닌다.

- **중략- 따라서, 최소한 영어강의가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이라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영어강의가 효과적이라는 확대 시행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하겠다.**(42)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학자들 및 기관들에서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특정한 외국어의 강의 비율만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원하는 데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외국어 요구 조건 강조'만 보더라도 대학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외국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외국어 수업을 듣게 하거나 교수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강요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의 일부 언론기관에서 대학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지수'의 항목으로 대학의 영어강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며, 대학들 차원에서도 진정으로 국제화를 도모하기를 바란다면 영어강의 비율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소개된 많은 요소들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43)
- 대학의 전공수업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자본으로서의 영어가 더욱 강세를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한 실용적인 외국어로서의 기능을 넘어 대학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중략- 이로 인해, 정작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혼미해지고 미국에 대한 중요도와 의존도가 급증하여 결국 종속상태로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중략- 또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영어를 잘해야만 출세할 수 있다는 점을 피부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의 극대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쉽게 예상된다.** **-중략- 그래서 대학교육에서 영어강의의 확대 시행 문제는 단순히 대학 내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이하로까지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전달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영어강의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영어는 사회계층의 결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영어실력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규 학교교육의 영어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유학 및 학원 등에서 영어 학습을 보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어 학습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영어능력이 결정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어려서부터 자녀의 영어교육을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더욱 뚜렷한 계층**

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가 사회계층 간에 상징적 폭력으로서의 부정적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45~46)

- 영어강의는 단순히 강의를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넘어,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우리사회의 언어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그와 함께 언어가 사고방식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라도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영어강의 확대 시행이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48)
- 하지영(2010)
  - 실험 결과, 영어 진행 전공 강의와 국어 강의 두 분반 모두 전공 지식 습득 면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반면, 두 분반 모두 영어 실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두 분반 모두 쓰기과제가 전공 지식 습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는 영어 교육을 배제한, 전공 내용에만 중점을 둔 내용중심교수법은 전공 습득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하였지만, 수업이 영어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202)
- 오희정·이은희(2010)
  - 먼저 영어강의에 대한 생각과 불안감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비록 영어강의 수강 후 영어강의 선호도는 다소 감소했지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크게 해소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략- **단기간(1학기)의 영어 수강으로도 학생들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는 점에서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어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면 영어강의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나아가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225)
- 김영섭(2011)
  -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어강의는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으며, 대학에서의 영어강의 확대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통용되는 시대 속에서 영어강의의 확대는 외국인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강의하고 수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중략- 교수들 또한 영어강의라는 현상에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지식의 나눔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며 학교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에 힘 쓸 경우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강의는 실제로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것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조한다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강의를 가능하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영어실력을 배양하는 것은 국내의 우수한 인재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기업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쌓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영어강의와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66~67)

-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강의 자체가 가진 문제점보다는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국제화 지수를 높여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무리하게 영어강의를 확대하며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질이 낮은 강의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영어강의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들이 먼저 영어강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영어강의가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어강의의 도입 과정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예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67~68)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가 곧 겪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외국의 인재와 유학생 유치에 될 것이다. 그 외국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인재들과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면, 학교는 그러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학생들이 강의를 보다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영어강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대학의 영어강의의 확대와 개선은 비단 현재 우리의 교수들과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중략- 대학의 영어강의는 보다 현명한 접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주력할 문제이지,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71)

#### ○ 정종철(2011)

- 이러한 수치목표와 관련하여 2011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1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1) 영어강좌수 및 그 비율에서 교육과정상 필수강좌의 경우 127개 대학 평균 11.6% (73,967개 강좌중 8,585개 강좌), 선택과목의 경우 5.8%(128,810개 강좌 중 7,463개 강좌)를 각각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7.9%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 대학별 영어강좌 비율을 살펴본 결과 포스텍이 필수교과목의 경우 약 89%, 선택교과 99%, 평균 약 95% 정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KAIST가 필수교과목의

경우 약 84%, 선택교과의 경우 약 85% 등 평균 84% 정도이며, 그밖의 대학의 경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조사대상 대학중 약 평균 15% 이상 실시율을 보이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교대 약 15%, 진주교대 약 26%, 경희대 약 36%, 중앙대 약 24%, 인하대 약 18%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그밖의 대학들은 10%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84)

○ 이기중(2011)

- 어느 대학이나 대학구내에서 외국학생을 만나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한국이라는 국가에 매료되거나 또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오는 학생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 온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개발도상국에서 Korean Dream을 꿈꾸며 오는 학생들이 많다. **대학이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외국학생들과 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에서의 수강을 위해 외국학생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는 하나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한국어 강의를 쫓아가는 것은 벅찬 일이다. 짧은 기간의 한국어 연수를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대학이 한국어 소양이 부족한 학생은 입학사정에서 고려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외국학생의 유치를 통해서 한국어 소양이 부족한 외국학생을 받은 이상 대학은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외국학생을 잘 교육시켜 졸업시키려면 대학에서 영어강의는 효과적 수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의 영어강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96)

□ 참고문헌

- 김달효(2010),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에 대한 비판적 논의, 『수산해양교육연구』 22-1.
- 김도식(2008),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가 과연 바람직한가, 『철학과현실』 76.
- 김명환(2007), 대학의 영어 강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안과 밖』 22.
- 김영섭(2011), 대학 영어강의 개선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에 수록.
- 심영숙(2010), 영어매개강의에 대한 대학생 인식 연구, 『영어학연구』 16-3.
- 오희정·이은희(2010), 영어강의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와 영어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22-4.
- 이기중(2011), 대학 영어강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에 수록.
- 정종철(2011), 국제화시대 대학 영어강의, 그 진단과 방향,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에 수록.

- 하지영(2010), A Comparison of the English and Content Literacy Developmen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CBI and KMC(대학 영어 진행 전공 강의와 국어 강의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과 전공 지식 습득 비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1), 『제3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국제화시대의 대학 영어강의, 그 진단과 방향』.
- 황종배(2007), 국어교육과 영어교육-모국어에 미치는 외국어 교육의 영향, 『국어교육학연구』 30.

□ 논점에 관한 신문 기사와 논설(kinds.or.kr,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검색)

- 고려대 내년 54개강좌 영어로 강의“학문 주체성 위협”비판 여론(한겨레 1990년11월8일)
  - **고려대가 7일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91학년도 1학기부터 ‘한국정치론’ ‘한국경영론’ 등 일부학부 전공과목에 대해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계획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려대쪽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교수들은 영어를 언어로 습득하는 것과 학문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명백히 달라 우리나라 학문의 주체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공계 ‘영어 강의’ 바람 준비 부족 시행착오도(중앙일보 2003년9월25일, 최지영 기자)
  - **학문에 국경이 없는 이공계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영어 강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요란하게 도입한 영어 강의가 준비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다.
  -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이상의 이공계 강의는 영어로 하는 것이 연구능력 향상과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꾸준히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들의 평가다.** 광주과학기술원 나정용 원장은 "원활한 영어 강의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사전 합의와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강의과정을 따라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능력이 미진하다면 학교에서 다양한 어학 강좌를 통해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과기원은 이를 위해 외국인 영어 강사 3명을 두고, 학생들이 1인당 어학과정을 2~3개 듣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지난해부터 학부생들에게 하루 4시간씩 따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UC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입학 전 영어 캠프도 준비 중이다. 김정희 교무팀장은 "입학 전에 토플 5백점이 안 되는 합격생들은 개학 전에 5주간의 영어캠프를 듣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학 영어강의의 그늘 / (下) 교수들도 피해자(경향신문 2006년6월28일, 김준일,이호준, 임지선 기자)
  - 대학들의 영어강의 확대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뿐 아니다. **‘영어 강의능력’이 능력평가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 영.미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각광받는 반면 유럽출신 박사들은 임용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영어강의 능력’ 우대는 국내 학계의 영.미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박겨용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 공부해 임용되는 교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학문의 미국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학자라면 외국 학문을 우리말로 정착시켜 ‘한국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번역없이 영어로 떠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 [권태선 칼럼]몸통을 흔드는 꼬리, 대학 영어강의(한겨레 2007년9월3일)
  - 삼성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이 영어교육에 퍼붓는 돈은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인 15조원이다. **대학의 영어강의 확대는 이런 광풍에 기름을 붓는 꼴일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영어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모국어를 무시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정체성 상실로 이끌 위험이 큰 도박이다.** 오죽하면 원로 영문학자 김진만 교수가 우리 사회의 영어에 대한 강박을 인권유린 수준이라고 질타하겠는가?
  - 영어교육학자인 인하대 이현우 교수는 한국 영어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오적으로 대학 입시, 상업주의적 비전문교육, 문제풀이식 교육 및 그릇된 처방전을 들면서 이 모든 것에 앞선 제1의 적은 영어가 경쟁력이란 믿음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국제적 경쟁사회에서 앞서려면 창의력 있고 모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어는 도구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된 영어강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사설> 영어도 강의도 놓치는 대학 영어강의 붐(경향신문 2007년10월9일)
  - 영어 강의 개설의 취지를 모르는 비는 아니다. 세계화시대에 영어가 성공의 사다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고 보면 대학이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영어 잘하는 학생도 늘고, 해외 저명 학자들의 국내 강의도 증가 추세여서 영어 강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듯한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 경쟁력의 원천은 학문의 수준이지 영어 강의의 수가 아니다. 무작정 늘리고 볼 만큼 영어 강의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 영어능력 향상에는 어학강좌가 더 유용하다. 영어 강의는 검증되고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게 교육적이다. 사회적으로도 영어강좌 확대는 영어권 유학파에 대한 노골적인 우대이자, 영어만 서툰 인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다. 영어 강의의

수가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학문의 빈곤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차준영칼럼]한국학 영어강의 환영한다(세계일보 2008년3월4일)
  - 1980년대 이후 전통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풍토, 공부하고 익히려는 분위기가 많이 진작되기는 했다. 그렇다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바뀐 것은 아니다. 바깥과 남을 살피기에 급급한 세태는 아직 여전하다. **이런 판국에 영어 일변도의 초중등 교육이 강제되면 한국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우리 것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더욱 심해질 공간이 다분하다. 결국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언젠가는 영어권에 동화 흡수·편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큰 것이다.**
  - 서울대가 신학기부터 한국사와 한국철학, 한국종교 등의 국제화를 겨냥해 국사학과 대학원 수업에 영어강의를 도입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한국사회사 연구’ 과목은 강의는 물론 교재부터 제출 과제나 발표까지 영어를 쓰게 한다고 한다. 한국학 연구 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의 연구 오류를 비판하거나 외국학자들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학원 전공자들은 호주 일본 중국 등지에서 외국어를 익히면서 한국학도 전파할 것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시도다. 외국어를 매개로 우리 것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려는 주체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학원뿐 아니라 앞으로 학부과정에도 이를 확대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 외국어 구사 능력이 빼어나도 우리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전할 수 없고 남의 잘못된 연구를 비판할 수도 없다. 정체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에 소개할 수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 한국학의 국제화는 시대적 소명이다.
- [시론] 대학 영어강의에 운영의 묘를(한국일보 2008년 3월 21일, 장동한 건국대 상경대 교수)
  -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완벽한 발음이나 완전한 문법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영어로 강의 듣고, 영어 교재를 읽고 이해하며,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영어강의 본연의 취지다. 영어강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특히 반론의 핵심이 되는 심화학습의 한계라는 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지난 5년여 간 영어강의를 해 온 경험에 비춰 100% 영어강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강사나 수강생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로만 하는 강의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필자의 영어강의에서는 이해 정도에 따라 70~80% 수준의 영어를 활용한다. 거기에다 강의노트를 학기 초에 미리 배포해 판서하는 시간을 줄이고, 유인물 읽을 거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빠뜨린 이슈를 수시과제를 통해 스스로 분

석하게 하고, 발표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 영어 몰입 교육이나 실용영어 학습이나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대학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학습 목표가 우선이지 영어가 결코 우선일 수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배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대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더없이 중요하다. 영어강의는 한층 더 확산되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영어로 강의 듣고, 영어 문헌을 어려움 없이 활용하고,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강조되어야 한다. 영어강의는 '하고 말고'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 영어로 질문하자 강의실 '침묵' 학생은 속타고, 교수는 목타고 ● 영어로 수업 진행하는 대학 강의실(조선일보 2008년4월14일, 오윤희 김경은 기자)
  - 최근 주요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가 크게 늘었다. 올해 1학기 주요 대학들이 개설한 영어 강좌 수와 비율은 고려대 1186개(33.76%), 서강대 199개(17.92%), 서울대 592개(12.4%), 성균관대 371개(15.7%), 연세대 668개(27.02%), 한양대 498개(18.3%)였다. 지난해 1학기 영어 강좌 수가 고려대 1079개(31.86%), 서강대 149개(7.7%), 서울대 93개(3.03%), 성균관대 150개(6.85%), 연세대 327개(14.67%), 한양대 109개(4.27%)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대학이 '국제화 시대' 흐름을 좇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우리말로 충실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옳은가.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서울대 글로벌 MBA' 강의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경영학과 송재용 교수는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할 경우, 학생들의 이해 수준은 한국어 강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나 '영어'냐를 두고 늘 갈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 수업 대부분을 영어로 강의하는 KAIST의 메리 캐서린 톰슨(여:29)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익숙해지는 데 2개월 정도 걸렸지만 그 후엔 놀랄 만큼 실력이 늘었다"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영어 수업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영어강의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 영어 전용 강의가 필요하다(대전일보 2008년 10월 16일, 김정숙(배재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높은 경제 수준과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은 외국에 유학생을 많이 파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교육 수입국이다. 미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만도 10만 명이 넘으며, 중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 있는 학생의 수를 포함하면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200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 현재

5만 명이 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 수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심각한 불균형에서 오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즉 해외로 유학하는 우리의 학생 수를 가능한 줄이고,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필수적인 사항이 영어 전용 강의다. 영어 강의 개설에 대하여 대학 내부에서는 교육 내용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의 학생 모집이 국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학들의 언어가 영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처럼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졸업 후 한국어를 사용해서 취직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의 유학생들만 가능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후에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면 한국의 대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유학지가 영어권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우리 대학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데도 영어 강의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전공과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소비하는 외화를 국내 대학에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유리한 일이다.

- [열린세상] 영어강의는 정신나간 짓이다(서울신문 2008년 11월 15일, 김무곤 동국대 신문방송학 교수)
  - 온나라가 영어열풍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에 목숨을 걸고 있다. 영어를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이미 영어는 권력이자 이데올로기다. 영어 권력은 시도 때도 없이 젊은이들을 협박한다. "영어는 이제 잘하면 성공하는 특기가 아니라,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기본기(基本技)다." 만약 이 명제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캄캄하다. 아무리 제 나라 말로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제 나라 글로 된 책을 열심히 읽어도, 아무리 애국심이 강해도,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효성이 깊어도, 단지 영어 하나 잘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탈을 쓴 영어학원이다.
  - 한국의 대학은 왜 이렇도록 영어에 몰입하는가? 영어강의를 해야 세계적인 명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잘 모르고 말했다면 실수라고 용서할 수 있지만, 알고도 그랬다면 허위사실 유포다. 영국 신문 '더 타임스'가 발표한 2008년 세계대학 랭킹을 꺼내보자. 상위권에 드는 대학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미·호주권 대학을 빼 나머지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이 주장의 허구성이 금방 드러난다. 일본의 도쿄대·교토대·오사카대, 프랑스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에르', 스위

- 스의 로잔과학기술대학, 핀란드의 헬싱키대, 이스라엘의 헤브루대. 이 모두 자기나라 말로 강의하고 연구하는 대학들이다. 영어로 강의하는 동남아의 몇몇 대학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멀쩡한 우리 말 놔두고 다른 나라 말로 강의하는 일은 한국의 대학이 세계 일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 국가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어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잘 배워두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제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는 이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도 동의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의 영어 열풍은 그 도가 지나치다. 국가의 인력 자원을 잘못된 곳에 과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말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토론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돈과 노력과 시간을 영어에 모두 쏟는 '정신 나간' 일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 기고 / 영어강의 보다 내용이 문제다(동아일보 2009년 6월 9일, 이정식 쉐일베니아대 명예교수·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좌교수)
    - 학문 수준과 국제화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영어로 가르치는 강좌 수가 많을수록 국제화가 촉진되고 대학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콩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는 해야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학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영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가르치는 언어와 학문 수준 간에는 연관성이 없다. 내용이, 콘텐츠가 문제이다.
    - 내가 영어로 가르치는 강좌 수 증가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랫동안 국내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쳐 본 경험에서 나온다. 지금 상태에서 대학생에게 영어로 강의를 하려면 가르치는 질을 대폭 떨어뜨려야 한다. 과제물의 양도 대폭 줄이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영어 독해력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중략- 영어로 가르치는 강좌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결과를 자아내게 마련이다.
    -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강좌를 늘려야 한다면 대학에 영어로 가르치는 대학 또는 학부를 만들어 따로 가르쳐야 한다. 외국인고등학교와 같이 해야 한다. 그 외의 학생에게는 수준 높은 강의를 한국말로 해야 한다. 한국말로 확실하게 공부하고 와서 미국 학생 못지않은 성적을 올리면서 성과를 거두는 유학생을 너무나 많이 봤다.
  - 경향신문 “이렇게” / ‘세계화’ 앞세운 영어전용 강의 반성해야(경향신문 2009년 10월 13일, 김영환 부경대 신방관 교수, 한글철학연구소장)
    - 영어로 논문 쓰기가 장려되면서 우리말 학술지는 무턱대고 2류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말로 된 학문공동체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한국어로 이루어지던 지적 축적이 또다시 단절되고 미국으로 흡수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날 우리말과 글로 지적인 활동을 한 전통이 매우 약하다. 중국과 같은 글자를 써야 문명국이 된다고 생각하던 동문(同文) 의식은 오늘날 영어 전용 강의와 맥락이 같다. 학문과 교육은 한문 읽기와 쓰기에 집중되었다. 우리말을 방언이라 보던 의식은 국제어를 영어로 보는 관점에 알게 모르게 전제되어 있다. 우리말과 글을 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외국어, 특히 영어를 말한다든 게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는 어휘나 말본, 소리에서 우리와 공통성이 거의 없다. 또 영어를 우리가 배우기에 어렵다는 것은 영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차체나 각급 학교에서 영어 마을이며 영어 체험 교실을 만들고 있다. 말을 배우는 데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어가 단순히 추상적 규칙은 아니며 이미 미국적 삶의 방식이 함께 묻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언어와 문화는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런 상식을 외면하고 앞으로도 영어 전용 강의를 밀어붙인다면, 쉽지 않은 영어 강의에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겨 막상 전공 강의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
- 우리에게 이해의 출발점이자 궁극 매체인 우리말을 버리고 영어를 받들면서 ‘국제화, 선진화’를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자기 망각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과 학문에서 우리말과 우리 문자를 배제해 왔던 오랜 인습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대학의 영어 전용 강의에 방향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부추겨 온 제도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리라 본다.
- 경향신문을 읽고 / 영어전용 강의 걸음마 수준, 더 늘려야(경향신문 2009년 10월 16일, 장영준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 필자는 영어공용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 영어전용 강의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이슈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어전용 강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첫째, 영어전용 강의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영어강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대학도 (카이스트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전체 강좌의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김 교수는 현재 영어강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듯하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갈 일이지, 그것 때문에 영어강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내 자식이 대학생이라면, 필자는 단연코 영어 강의 수강을 강력 추천할 것이다. 셋째, 김 교수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 우리 학문은 누가 세

**계에 알릴 것인가.** 전 세계 학술지의 상당수가 영어로 출판되는 현실에서 우리말로만 논문을 쓰자는 김 교수의 주장은 시대역행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노벨상 낙두리, 즉 번역이 잘 안되어 노벨문학상을 못 타느니 하는 푸념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영어강의는 곧 “우리말과 글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중언어나 다중언어를 쓰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말과 글을 냉대하고 무관심해진 건 아닐 터다.**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김 교수도 이 점에는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 [삶의 창]영어강의도 사회문제다(한겨레 2010년 1월 9일, 황현산 고려대 불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 영어강의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할 때, 그 내용이 부실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은 학문 활동과 우리말의 관계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결국은 말로 정리되고, 말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게다가 말은 정리와 전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지식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발판이기도 하기에, 결국은 지식과 생각 그 자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다. 생각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면 말도 발전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 전공 분야에서 선배 교수들이 반세기 전에 쓴 책을 지금 읽으려 하면,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책을 읽기보다 더 힘들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은 선배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우리말이 그들의 지식과 생각을 담거나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 후 우리 사회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드높아 학문이 짧은 시간에 적잖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말도 성장하는 쪽으로 크게 변화했다. 사회의 발전이 그에 힘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중요한 논문과 강의가 오직 외국어에 의지하게 된다면, 이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 아니 중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조선시대처럼 언문의 위치로 떨어질 것이다.
  - 한 집단이 오래 사용해온 언어, 이를테면 모국어는 그 언어사용자들의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외국어에 의존하는 강의는 이 깊은 경험을 이용할 수 없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학술활동은 연구행위와 교수행위로 나뉘지만 강의도 연구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다. 강의하는 사람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실마리만 붙잡았던 생각을 강의중에 학생들과 공동 주체가 되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 이것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모국어적 직관의 덕택이다. 외국어 강의가 이 직관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강의가 주로 프레젠테이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물론 외국어 강의를 철저한 교안 준비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교수가 없지 않다는 점도 밝혀 둔다.) 외국어 강의는 선생과 학생이 함께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 현상이 되기 어렵다.

- [기고] 대학 영어교육 소통능력 키워야(세계일보 2010년 12월 7일, 조동완 포스텍 교수·영어교육학)
  -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내에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친취직적이고 패기 넘치는 인적자원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은 자명하다.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 구사 능력이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대학마다 영어교육 환경이 다르고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다르겠지만, 영어가 국가와 개인의 생존 도구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각 대학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문·사·철 강좌 폐강위기, 영어 강의는 수강폭주/대졸 취업난에 강의실 풍경 극과극(한겨레 2010년3월16일, 송인걸 기자)
  - 대전지역 대학가에서 기초학문 강좌는 수강생이 적어 폐강 위기를 맞는 대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영어 강좌는 신청자가 폭주하는 강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현재 지역대학들의 1학기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역사·문학·철학 등 기초 교양과목들이 수강생 미달로 폐강 위기를 맞고 있다. -중략- 반면, 영어 강의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에는 수강 신청이 폭주하면서 강좌가 늘고 있다. 한남대는 올 1학기 전체 강의 2500개 강좌 가운데 영문학 관련 학문을 제외한 순수 학과 수업 45개 강좌를 영어로 진행한다. 한밭대도 올 1학기에만 70개 강좌를 100% 영어로 수업한다. 2008년 1학기 12개 강좌를 시작으로 지난해 1·2학기 각각 63개와 58개 강좌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다. 수강 신청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충남대 역시 올 1학기 영어로만 수업하는 강좌가 총 80개 개설됐다. 이런 강좌는 한남대가 지난해보다 2개, 한밭대는 12개, 충남대는 2008년 대비 61개가 늘어난 것이다. 배재대는 2007년 1학기 17개 강좌에서 올 1학기 57개 강좌로 2년 새 3배 이상 늘었으며, 우송대도 특성화대학인 ‘술브릿지국제대학’의 경우 100%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 대학가 영어강의 27%만 “만족”(파이낸셜뉴스 2010년6월14일)
  -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 재학생 조사 결과 ‘영어강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46%에 불과했다. ‘불만족’은 37.91%, 보통이라는 응답은 34.64%였다. 영의



강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 구사력'(50%)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강의자의 영어 구사력과 강의력' 43%, '영어 과목 선택권 제한' 23%, '해당 과목 특성에 맞지 않아서' 20%, '영의 강의에 맞는 자료 부족' 5% 등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데도 개설된 영어강의를 억지로 들어야 하는 데다 정작 듣고 싶은 과목은 개설되지 않는다는 불만 정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강의를 듣지 않는 이유는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서'(38%), '영어공부를 먼저 하려고'(23%),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22%), '의무수강 면제'(20%), '영어에 대한 거부감'(17%) 등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강의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성적 절대 평가'가 50%로 1위를 차지했다. 영어실력 향상(35%)이나 수업 내용 이해에 도움(8%)보다는 영어강의가 학점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정은 동국대 등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영어강의 수강 이유로 동국대 응답자 중 47%가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9%에 불과했다.

○ [아침을 열며] 영어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한국일보, 2011년 1월 25일, 김은주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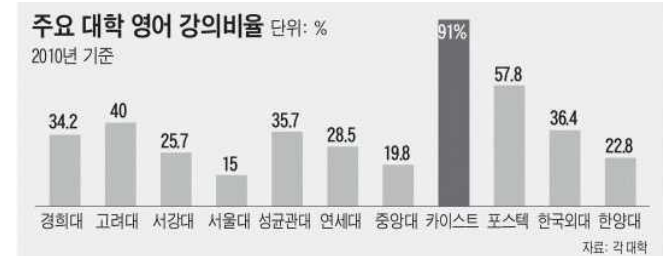
- 최근 동료 교수와 함께 교수법 연구를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던 학부생들은 고교 영어내신이 1등급이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전공기초과목 영어 강의 내용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어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하였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자신이 왜 대학에 와서 수업도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야 하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고교 내신에서 수능까지 만점을 주면서 쉬운 영어를 가르치다가, 대학에 와서 갑자기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했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했으면 그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를 했을 텐데, 왜 고등학교와 수능, 심지어 대학 교양영어까지 모두 쉬운 내용을 다루다가 갑자기 어려운 영어 강의를 수강하도록 반강제적으로 요구하느냐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이러한 항의성 질문에 누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한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죽 살면서 열심히 학교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대학 영어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영어 사교육을 강도 높게 받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남다른 기회가 있었던 학생들만 영어 강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영어 강의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 대학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없이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 “우린 영어 강의만으로 만족 못한다” 아예 영어 공용화 추진하는 대학들(조선일보 2011년 2월 23일 유석재 기자)



○ [태평로] 영어강의, 필요한 분야 준비된 교수부터(조선일보 2011년 3월 1일, 김태익)

- 국내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영어강의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5~6년 전부터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운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영어강의 비율을 높여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강의 비율 목표치를 50%로 잡은 곳도 있다. 영어로 하는 강의는 수강신청 학생이 2~3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대학들은 보통 수강생 5명 미만 강의는 폐강(閉講)하지만 영어로 하는 강의는 예외로 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학생의 영어능력 향상과 대학의 국제화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전공 과목의 특성과 교수의 강의능력, 학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몰아치듯 영어강의를 늘리다 보면 영어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 **영어강의는 필요한 분야, 준비된 교수부터 하는 게 좋다.** 국제 비즈니스나 국제정치 같은 분야는 우선적으로 영어강의가 필요할 것이다. 영어강의는 본인도 자신 있고 학생도 인정하는 교수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교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뽑되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영어가 필요하면 애꿎게 영어와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게 할 게 아니라 영어실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별도의 기관을 대학 내에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모든 학생의 수강을 의무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어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강의가 희생돼선 안 된다.

○ [이슈진단] '대학교 영어강의' 왜 무리하게 시행하나 봤더니..(파이낸셜뉴스 2011년 4월 12일, 엄민우 기자)

-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렇게 영어강의를 경쟁하듯 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들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라 주장하지만 실제론 대학평가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평가와 함께 현재 대표적으로 꼽히는 대학 평가는 더 타임스지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진행하는 '세계대학평가'와 국내 A언론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평가가 있다. 이 두 기관에서 이뤄지는 평가 항목을 보면 영어 강의나 외국인 교수 비중이 활용되고 있어 대학들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 교내 대외교류처장을 맡고 있는 한 대학 교수는 “대학평가순위에 따라 학교 이미지와 홍보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평가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중략- A언론사에서 평가항목에 ‘영어수업 비중’을 포함한 건 2006년부터다. 이는 대학들이 영어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 [이슈진단] 영어 강의 시간에 농담해도.. “왜 웃지?” 어리둥절(파이낸셜뉴스 2011년 4월 12일, 남형도 기자)
  - 민교협 장시기 교수는 “일부 영어 관련 학과는 필요할 수는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강제성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바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 연구소 관계자도 “강제로 영어 강의를 듣게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강의를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어 전용 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수들은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교육은 그 나라의 모국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어는 학문을 배우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영어 강의가 모든 학문을 ‘영어 회화 수업’으로 만들면서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하락시킨다”고 말했다.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이광근 교수도 “모든 학문이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것은 항상 어머니의 혀(모국어)로 달성된다고 한다”면서 “영국 과학 기술은 라틴어나 불어로 꽃피지 않았다”며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사실]영어 강의 문제점 검토할 필요 있다(아시아투데이 2011년4월13일)
  - “조선 현종 임금에 조종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묻자, 신하 유혁연이 두 손을 들어 ‘요만하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대화를 기록하는 기주관(記注官)이 그 문답을 받아쓰지 못하고 ‘뱃방울’만 찍었다. 유혁연이 이를 보고 ‘상문조종지장어혁연, 거수척여이대월여시(上問鳥銃之長於赫然 舉手尺餘以對曰如是)’라고 쓰지 못하느냐며 꾸짖었다.” 단재 신채호는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남의 글로 내 나라 역사를 기술하기가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남의 글은 “역사 서술의 도구로 부적당하다”고 했다. 신채호가 말한 ‘남의 글’이란 한문이였다. 그렇지만 영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어 역

시 ‘남의 말’이기 때문이다.

- 물론 영어는 잘해야 좋다. 영어를 잘못하면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몰입은 문제가 있다. 어떤 영어마을에서는 아이들에게 돈도 ‘달러’만 쓰도록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밥’ 대신 ‘파스타’를 먹인다고 했다. 심지어는 “영어로 생활하고, 영어로 꿈꾸자”고 했을 정도다. 꿈마저 영어로 꾸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성장한 뒤에는 영어 강의다. **영어를 몰입하다보면 다른 공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다는 외교통상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번역을 실수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기고 / 대학사회 명들게 하는 ‘난개발’ 영어강의(동아일보 2011년 4월 16일, 강정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영어강의는 점차 국제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영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나 외국에서 온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강의가 필수로 부각된 이유는, 이런 실제적인 필요성을 넘어 한국 대학의 국제화 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 달성이라는 화두가 영어를 절대적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풍조에 편승하여 무비판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학 평가에서 영어강의 비율을 대학의 국제화 지표로 강조하고 선전하는 일부 언론사와 대학에 대한 국고 지원을 조건으로 외국인 교수 채용을 강조하는 정부의 주무부처도 가세하고 있다.
  - 영어강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난개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영어강의는 학문적으로 영성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나아가 영어강의에 대한 무분별한 몰입은 우리 학문의 전반적인 경향마저 왜곡시키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에서는 가뜩이나 학문의 서구 의존성, 특히 미국 의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어강의에 대한 몰입은 이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들이 영어강의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미권 출신 박사를 과거보다 더 편중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 한국 대학이 국내 박사를 외면하고 서구에서 교육받은 해외 박사를 우대 채용함으로써 국내 박사의 양성과 채용을 기피해 온 관행은 우리 학문의 주체성 및 정체성과 관련해 오랫동안 지적돼 온 고질적인 병폐이다.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해외의 선진적인 학문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입원이 다원화되지 못하고 주로 영미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병폐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

- <시론> 우리문화 알보게 만드는 ‘영어 몰입 강의’(경향신문 2011년 4월 19일, 김영환 부경대 교수·한글철학연구소장)
  - 영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한문 읽기와 쓰기를 절대적 가치로 알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전통에서 우리에게 학문과 교육은 곧 한문을 읽고 쓰는 일이었다. 학문의 언어와 삶의 언어가 이원적으로 분리됐던 것이다. ‘언문’은 일단 이런 학문과 교육의 언어에서 배제된 나날의 삶에서만 쓰이는 말을 적는 글자였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먼저 본국말을 배우고 난 뒤에 외국말을 배우는데, 조선에서는 국문은 배우지 않아도 한문을 배우는” 악습을 비판했다. 왕조 시대를 지나 식민지 시절에도 우리말은 교육과 학문의 언어가 될 수 없었다. 우리말과 글자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펴 낫선 것이어서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언문은 학문에 방해된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말과 글자는 학문과 교육에 방해되며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영어몰입 강의는 이런 무의식이 되살아난 것이다.
  - 언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관습의 체계다. 이 관습은 자의적이지만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면서 그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익히게 된다. 영어는 우리에게 말본, 어휘, 소리에서 우리말과 거리가 가장 먼 언어에 속한다. 그런 언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수업은 모든 질문, 토론을 잠재울 수밖에 없다. **대학생 영어몰입 강의는 미국식 문화에 대한 적응을 절대시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알보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돼 있다. 이것은 교육의 비효율성이나 경제적 비용을 훌쩍 넘어가는 문제다.**
  - 영어는 오늘날 국제 언어이다. 학문 활동에서도 가장 널리 쓰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에서 우리 말과 정책이 딱 부러지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패권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중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러운 미신이다. 우리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대체로써 우리말과 글을 존중해야 한다. 영어로만 하는 강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따라야 할 원칙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의 영어몰입 강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 [시론] ‘100% 영어강의’ 계속돼야(한국경제, 2011년 4월 29일, 임진혁 울산과기대 교수·경영정보학)
  - 최근의 KAIST 사태와 관련해 서남표식 교육개혁이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100% 영어강의’이다. 이에 대한 주된 반론은 ‘교수들이 영어의 제약 때문

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학생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교수들이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100% 영어강의’는 할 수가 없다. 즉 한국 대학에서는 불가능한 명제가 된다.

- 한 학생이 찾아와 “저는 겨우 60% 정도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래? 그 정도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 내가 유학할 때는 반도 이해 못 했다. 하지만 결국엔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될 수 있었다”며 격려해 주었다. 1년 후 그 학생이 기쁜 모습으로 “이제는 약 70~80% 정도가 이해됩니다”라고 말했다.
- 영어는 이제 외국어라기보다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교육에서는 공용어가 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예전 같이 비싼 경비를 들여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영어강의가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학들이 한국의 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주된 이유가 바로 영어의 공용화에 있다.
- \*카이스트 ‘강제 영어강의’ 지금은?(아시아투데이, 2011년 5월 4일, 방성훈 기자)
  - 영어강의는 카이스트의 학생이 자살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카이스트 내 상당수 교수와 학생들은? “영어강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규홍(22·전산학과)씨는 “영어강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신입생부터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수와 학생의 토론수업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들만 참여해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을 끊어놨다”고 말했다. 급진적인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학년별 영어강의 차등화, 전공만 의무화하거나 아예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학생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통의 부재 및 집중력·이해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학년의 경우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이 많아 전공과목의 숙련도를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영어의 부담까지 더해져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한다. 권영출 학부 총학생회장은 “어떻게 보면 영어강의 의무화는 교수의 학습권 침해다. 과목 특성에 따라 당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록 2

조선일보 기사

# “동아리·땃글이란 말도 처음엔 어색했다” “언어는 원래 혼탁... 섞이며 표현 늘어나”

## 외국어 순화 국어정책 토론회

“투데이뉴스에서 이 문제를 스페셜로 리포트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됩니까.”

김두무한 경기상고 교사는 외국어로 얼룩진 우리 ‘땃글살이’에 대한 탄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지자체들도 ‘부천 한타지아’ ‘하이 서울’ 하는 식으로 국적 불문의 표현을 남용합니다.”

국어학회와 조선일보사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국어정책 토론회 다섯 번째,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누리꾼” 인가 “네티즌” 인가**’. 외국어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워낙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여서인지 발표와 토론에 이어 질문이 꼬리를 물어 예정시간을 넘겨서 끝날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먼저 발표에 나선 김두무한 교사는 ‘**“토박이말 사용론자”에 대한 “역사전”을 거론했다.**

“**“날플” (비행기)이나 “배꽃게집 예오로지배움집” (이화여자전문학교) 같은 말은 한자 순배자들이 국어학자 최한배 선생의 우리말 운동에 흠집을 내려고 만든 말”**이라고 했다. 그는 “한글학회가 펴낸 1957년 ‘**본사전**’ **“날말 통계만 봐도 표준말 14만464개 가운데 토박이말은 5만6115개, 빌린 말이 8만4349개”**라면서 “**말으로 토박이말이 70%는 되는 방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스스로 만들기(쪽집게, 막가파, 몽땅, 책날개)나 스스로 말다듬기(통조림, 누리꾼, 셜름, 캄박이, 동아리)를 통해 새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가르치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반대 토론자인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언어는 원



“언어대중에게 중요한 것은 쓰기에 관한 말이다.” “언어는 민족의 정신을 규정한다. 왜 남의 말을 쓰는가.” 25일 외래어의 허용 범위를 두고 패널들은 격정적 토론을 펼쳤다.

**외국어 대신 사용하는 우리말 예**  
서울→동아리  
신입생→새내기  
리플→땃글  
네티즌→누리꾼  
웹캠→참살이  
이메일→aj→글방이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malteo.net)에 오른 순화어**  
풀음선→모두갖출  
틀모양→본보기상  
피이름→이저  
출안→다걸기  
메타맵→모듬꽃이  
워킹맘→직장인임마  
아이젠→눈길맨  
리라스→위풍이굴면  
블루오션→대안시장  
호스피스→임종봉사자  
선루프→지뽕창  
다치똥이→각자내기  
햇뻘조→한뻘버지  
스킨십→교복갑  
대크셔를→그늘  
메신저→쪽지창  
이모터→그림말  
슈카시→총재기

**우리말로 바뀌어 단어에 창의력 발휘하면 돼 새내기 등 성공한 경우도 많아 다양성 인정해야 일제시대 겪어 순화에 집착 다수가 쓰는 표현 따르면 돼**

래 혼탁한 것”이라고 읊수했다. 그는 “국어를 순화될 상태로 상정하고 외국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학자들의 생각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언어 사용자들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순화론자들은 과거 우리 말에서 일변어 ‘쓰레기’를 몰아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젓가락(외래사), 쟁반(오봉)처럼 이전에 있었던 우리 말만 되살리는 등 성과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나도 페이스북 대신 ‘일술(일글술)**’, **노출 심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을 뜻하는 ‘슬릿워크(slutwalk)’를 ‘잡넬행진’이라 따라 부르기도 한다”**며 “언어 사용자들은 기원을

따지지 않고 일에 붙은 말을 쓴다. 언어생활의 다양성을 용인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변정수 출판 컨설턴트는 “언어를 순화하려는 범상 자체가 일본어를 공용으로 강제하던 식민지 시대의 정형이 남긴 일종의 정신적 상처”라면서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가진 문화들이 접촉·교류하는 과정에서 개별 언어의 표현 언어이 확정되고 더 풍성해졌다”고 했다. 그는 “**결국 좋은 내용은 좋은 표현에 담을 때 용내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실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게그맨에서 ‘한글 지킴이’로 변신한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는 “순화운동 무용론”에 대해 과거의 성과를 상기시켰다. “80년대 대학 시절 ‘서울’을 ‘동아리’라고 하자 했을 때 다음 필경혀 어색해했다. 대학생은 속제가 아니라 ‘리포트’, 신입생을 ‘포레시맨’이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다. 새내기라고 하면 혼스럽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들 쓰지 않나? 중국

사람은 컴퓨터 대신 전보(電報)라고 쓰는데 우리말에도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는 또 “땃글, 누리꾼, 참살이(웹캠) 같은 말이나 이메일 주소에서 ‘@’를 ‘글방이’로 부르는 것을 봐도 순화 노력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할 말이 많았다. 이대성 거례발 큰사전편찬사업의 연구원은 “국어운동가들의 언어 순화 노력을 폭력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생활도 사실은 어떤 폭력이나 억압적인 기제에 의한 것은 아닌가” 반문했다.

군산대 권병로 국문과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걸 보고 놀랐다. 관공서가 어떤 수 있나. 특히 언어 혼탁의 주범은 방송 등 언론 매체다. 프로그램 제작의 90% 이상이 외국어다. 정책적 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문과 답변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사회를 맡은 손범규 SBS 아나운서가 “그 밖의 의견들은 조선닷컴 토론회에 올리실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전병근 기자 bjkjrn@chosun.com

■ 여섯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 기사 - 9월 6일자

朝鮮日報

세계화 필수 코스? 대학 평가 전시용?

국어정책토론회 (6-관) 대학 영어강의 의무화해야 하나

올해 1학기 전국 12개 대학에서 영어교 강 의와 강의를 강제 수준 70%에 이른다(한국 대학교육진흥원) 강제, 제1차년도 학과 대 학기에서도 영어 강의를 넣고 있다. 하지만 한 관 영일(세민)은 아니다. '세계 공용어' 사용을 촉진 해야 한다. 외국어 유망성(취업)도 필요 한다는 신승훈이 대학 영어 강의 가점인 안 의 있다. '수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맞는다. 국어원천(본사)가 주관하고 국립국어 원이 주최하는 국어정책토론회 9차(6일) 주 최는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나'가. 6일 목요일 서울에서 진행될 토론회에는 영일, 신승훈, 이희재, 국어연구원 교수인 토론회진출 나 시다.

▶chusan.com 토론회대상을 통해 참여 가능

학생이 원하고 교수 영어 유창하면 만족도 높아

얼마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카이스트 사태 배 경 중 하나로 영어 강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대 학 수업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대 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사실 카이스트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대학에 있고 있는 사실인 것만 중 하 니다. 카이스트 사태 당시 대부분은 인문은 카이스트의 일부 학생과 교수도 느끼는 학습 및 강의 부 족과 무관심을 크게 부각하는 동시에 다른 많은 대 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어 강의의 정당성을 재나 라서서 비판했다. 그러나 인문의 많은 비판과 별개 영어 강의 효과에 대한 경계를 시도한 연구 또한 전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 평가를 위한 부분 별한 영어 강의 확대에 대한 비판이나 영어 강의의 편향적 지각에 그치지 않았다.

필자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생 들을 상대로 전공과목 강의를 영어교 했을 때와 한 국어로 할 때 효율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학 과별과 전공 지식 습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한국어 강의를 들은 학생들보다 강의 만족도와 총 마도에서 더 높았다. 영어 강의를 미한 부정적인 어 수가 학생들의 불만사항과 그에 따른 학습 흥미와 강 의 만족도 저하라고 할 때,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이 영어에 친숙하다고, 영어 로 강의한 교수 역시 영어 가 유창한 사람이었다. 따 라서 불만의 연구를 진행 하는 강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점은 바로 우리 대 학이 추구해야 할 영어 강의의 방향을 보여준다. 대 학의 영어 강의를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첫째, 수강 학생들이 영어 강의의 필요성을 공감하 고, 영어 능력에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동기가 있 어야 한다. 둘째,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들의 영어 가 유창해야 한다. 영어로 된 수업 자료를 전달하 는 데 불편해하는 안 되고, 자신-설교와 학생에게 일 시 교해야 하지만, 강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어 능 력 발달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건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영어 강의 를 할다면 학생과 교수 모두 상 호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황병태 한국대 영어교육과

영어강의 필요하다

영어로 논문 발표하는 佛·獨 대학도 의무화 안해

전국 전방위는 대학 영어 강 의는 추시적(推辭)으로 매우 강하게 보이지만 실제 는 몇 줄은 개성주에 불과하 다. 수업 대역에서 제공하는 영어 강의의 목적이 불 분명하다. 유럽 대학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영 어 강의를 외국 학생들을 위해 개설하는 것이 교편 의이다. 교과 준비나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발표 도 프로그램이 필요성을 공감하 고, 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질 높은 영어 강의를 제 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 어 능력이 떨어져 영어 강의를 못 따라가고, 외국 학생들은 교수 영어가 불명확하다. 자신도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이해를 느낀다.

대형이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영어 강의는 신 중해야 한다. 신중성들은 대학의 영어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학부 학생들은 영어 강의 때 문에 전공 지식을 희생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어가 전공이나 교양에 유익할 수는 없다. 200년 서울대 대학(광안대학) 조사를 보면, 대학 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졸업생들은 대학 과정에서 주었던 영어지 능력 중 영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영 어 능력 능력 12%, 영어 회화 능력 15%, 영어 글

쓰기 능력은 34%였다. 무엇을 대학에서 실천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불확하다. 또 다른 문제는 영어 강의를 모든 학과 분야에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다. 모든 학과 분야에 영어 강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모호하나 실용의 지인(지인) 분야 학자들도 논문을 발표하러 서울대 수학과를 물 리학 석사(박사)논문도 거의 100% 영어로 발표한다. 그렇다고 이 대학들이 영어 강의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어로 발표하는 것과 영 어 학업을 하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일부는 영어 강의를 둘러싼 환경은 공학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 어 능력이 떨어져 영어 강의를 못 따라가고, 외국 학생들은 교수 영어가 불명확하다. 자신도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이해를 느낀다.

대형이 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영어 강의는 신 중해야 한다. 신중성들은 대학의 영어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학부 학생들은 영어 강의 때 문에 전공 지식을 희생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영어가 전공이나 교양에 유익할 수는 없다. 200년 서울대 대학(광안대학) 조사를 보면, 대학 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졸업생들은 대학 과정에서 주었던 영어지 능력 중 영어를 활용하고 있었다. 영 어 능력 능력 12%, 영어 회화 능력 15%, 영어 글

이영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2011년 09월 06일 화요일 A22면 문화